

오륙도 칼럼



최홍식

이 강산에 연초록의 싹이 점점 짙어가고 있다. 이제 여름이다. 이 계절에는 아름다운 우리 민족 명절, 오월의 단오절과 유월의 유두일(流頭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날들을 거의 잊고 있다. 이 명절들을 기억하고 함께 즐겨보면 어떨까.

이상하게도 명절이라면 우리는 설날과 추석만을 손꼽는다. 이때는

고향으로 또 부모님 곁으로 가기 위해 민족 대 이동이 일어난다. 명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지나치게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계절마다 아름답고 행복한 민족적 명절이 있었다.

우리 선조들은 계절 구분이 뚜렷한 환경 속에서 농사 위주의 생활을 해 왔다. 따라서 계절 변화에 민감했다. 그리고 지혜롭게 적응하면서 농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적당하게 휴식을 취하고 생활에 활력을 갖도록 하였다.

우리 명절도 이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주요 명절에는 설이나 추석 외에도 한식, 단오절, 유두일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세시풍속은 음력에 의해 유지 전송되어 왔다.

단오와 유두를 잊고 사나

음력 5월이면 논이나 밭에 있는 보리를 베고 그 자리에 물을 담아 모심기에 바쁜 시기이다. 유월이면 더위를 알리는 대서(大暑) 절기가 있으며 농부들은 논밭의 김매기에 쉴 틈이 없다. 그런 계절에 오월 5일의 단오와 유월 보름날의 유두가 있다.

필자가 어렸을 때였다. 여름 더위가 한창인 단오나 유두일이 되면 고향의 마을사람들이 모두 일손을 놓고 함께 어울려 즐겼다. 특히, 물가에서 머리를 감고 물놀이를 하거나 목욕을 하며 마을엔 씨름판도 벌어졌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단오 음식이나 유두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과연 우리 선조들은 이날에 무엇을 하며 어떤 생활문화를 즐겼을까. 원래 단오는 태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날이어서 태양의 축제일이

라고 했다. 더운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단오 부채를 만들어 더위를 대비했다. 그리고 창포 잎을 우린 물에 머리를 감기도 하였다. 창포 향기가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유두란 말은 '동유두목욕(東流頭沐浴)'에서 유래했다. 동쪽의 맑은 개울물에 나가 목욕하고 머리를 감으며 물가에서 논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면 불길한 것을 쫓고 여름에 더위도 먹지 않는다는 속신이 있었다.

이들 명절이 되면 모두 농사일을 멈추고 하루를 쉬며 이웃끼리 함께 놀았다. 마을에선 농신제(農神祭)를 지내기도 하였다. 단오에는 젊은 남녀들이 그네뛰기놀이를 하고 남자들은 씨름판을 벌이기도 하였다. 유두일에는 선비들이 유두연

(流頭宴)이라 하여 술과 안주를 장만해서 계곡이나 정자에서 풍월을 즐겼으며, 이때 마시는 술을 유두음(流頭飲)이라 하였다.

이런 명절에는 독특한 음식문화가 있었다. 더위를 잊고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즐거움을 주는 식생활이었다. 그 맛과 멋 그리고 건강을 위한 각가지 지혜를 발휘하였다. 단오에 먹는 특별한음식으로는 수리취떡, 제조탕, 영두화채 등이 있었다. 유두에는 수단, 상화병, 연병, 수교의, 유두면 등이 특별한 음식이었다.

단오의 수리취떡은 수리취를 과하게 데쳐 찐 채 다진 것을 뽕쌀가루와 섞어 찐 다음, 납작하면서도 동그랗게 빚어 수레바퀴 모양의 떡살로 찍어낸 떡이다. 제조탕이나 영두화채는 더위를 이기고 보신하

기 위한 청량음료의 일종이다.

한편, 유두의 수단은 밀가루나 보리가루를 찌서 구슬처럼 동글게 빚은 후 쌀가루 입혀 삶아 낸 다음, 오미자 국에 띄워 낸 것이다.

상화병이나 연병은 밀가루와 소를 이용한 떡이다. 수교의는 만두의 일종이며 유두면은 밀가루 반죽을 구슬모양으로 빚어 잘게 만든 음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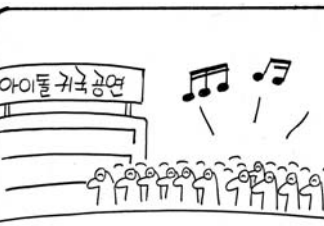
단오는 우리나라 4대 명절의 하나이니 말할 것도 없다. 유두일도 <농가월령가> 6월조에서 가일(佳日)이라고 했다. 가일이란면 경사스러운 날 혹은 좋은날 아닌가. 선조들은 하절에 있는 단오와 유두명절을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 행사를 하면서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이처럼 소중한 명절을 너무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더위와 농번기의 계절, 여름이 오면 바로 오월의 단오와 유월의 유두를 생각하게 된다.

부산대 명예교수·수필가

신선대

<209>



기간제근로자 채용

남구 국민체육센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키로 하고 6월30일까지 안방에서 낮잠을 자는 자격을 현재 55~64세의 남구에 거주하는 보일러 관련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607-4934



선용의

1000자 지혜

109

집념과 망심

송남잡시(松南雜識)에 십장수라가 지 일장인리불가지(十丈水裏可知 一丈人裏不可知)란 말이 나온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뜻인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하지 않고는 알기 어렵다.

설령 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더욱 어렵다.

정(鄭)나라 무공(武公)은 오래전부터 북쪽의 호(胡)나라를 치고 싶었지만 호나라는 발빠른 말이 많아 전쟁을 하면 불리할 것 같아 망설이고 있었다.

무공은 공리공에 한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었다. 바로 속임수를 쓰자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호나라 왕의 환심을 사서 공격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무공은 먼저 호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전쟁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호나라 왕은 무공을 믿을 수 없어 국경을 물샐틈 없이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 사실을 안 무공은 자기 딸을 호왕에게 보내어 친척의 인연을 맺으면 믿어주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호왕은 정나라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고도 여전히 경계를 놓지 않고 병사들에게 전투훈련을 시키고 있었다.

하루는 무공이 신하들을 불러 놓고 가까운 장래에 전쟁을 하고 싶는데 어느나라를 먼저 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신하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보며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관기사(關其思)란 신하가 무공의 마음을 알고 말했다.

“호(胡)를 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 무공은 버럭 화를 내며 “형제 나라를 어떻게 공격하란 말이나?” 하며 관기사의 목을 쳐 죽였다.

그 이야기가 호나라 왕에게 전해졌다. 호나라 왕은 그래서 호나라 왕의 환심을 사서 공격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무공은 딸을 기다렸다는 듯이 단숨에 호나라를 공격하여 손에 넣었다.

갖고 싶은 것을 찾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다. 무공의 집념은 대단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임자의 판단과 망심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변역문화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이기대 '자연마당' 환영

환경부의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이기대 지역이 선정되어, 지난 6월 4일부터 이기대 자연마당 조성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훼손된 도시 생태를 복원하면서 도시민을 위한 생태휴식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니, 인근지역 거주자로서 기쁜 기분이 크다.

사업비 40억원이 책정된 큰 공사이니만큼 아무쪼록 그 취지를 잘 살려, 생태보전과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잘 잡길 희망해 본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에 뒤따르게 마련인 각종 문제들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결하여 내년도로 예정된 완공일까지 입주가 말끔히 진행되었으면 한다.

대도시 가까이에 이기대 같은 공간이 있다는 건 남구 주민으로서 누

릴 수 있는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그 즐거움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기대 주변 환경이 잘 복원되었으면 좋겠다. 이수희(용호1동)

기초질서 지키자

어느 날 아이들과도 경성대 근처에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불양상을 이루고 있는 이곳은 말 그대로 젊음과 패기가 넘쳐나는 대학가 그 자체였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실감함을 느껴야 했다. 거리는 온통 전단지로 도배되고 담배공조가 나뉘고 있었다.

다. 짐을 뺐는 사람들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한 마디로 기초질서가 실종된 상태였다. 같이 간 아이들이 볼까봐 은근히 걱정됐다. 지성의 대명사 대학생들마저도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지킨다는 말인가. 젊음의 특권이

있듯이 기초질서를 지켜야 하는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한기현(감만2동)

교통신호 꼭 지켜야

도로위에서 무시해선 안 될 것이 신호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보행자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지나간다는 생각이 되면 세위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자주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리곤 한다.

특히 학교 앞과 속력을 줄여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에 사고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보행자의 부주의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겠지만 통째로 운전자의 문제라 더 많은 것으로 볼 때 신호를 지켜 안전한 운전하는 운전자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 보행로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내 가족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윤정화(우암1동)

화페 깨끗이 사용하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화폐를 너무 함부로 취급하다보니 화폐의 수명이 굉장히 짧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시민공원 조성 불가

예비군 훈련장을 시민공원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주신 대연3동 김명호 씨의 건의에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옛 예비군교장은 부일학원(학교법인) 부지로서 학교 용지이며, 개인사유지로 우리구에서

는 시민공원(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복지과·인추현>

구덩이 되 메워

보기 흉한 나무뿌리를 제거해 달라는 감만2동 강민수씨의 건의에 답

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나무뿌리 제거 및 굴취 구덩이 되 메우기에 대하여는 대상지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6월 30일 이전에 해당 뿌리를 제거하고 굴취 구덩이를 되 메워 안전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복지과·김동우>

국립아트센터 건립에 관심과 호응을...



부산시민공원 조성지 내 동남권을 대표하는 국립아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호응이 필요합니다. 동남권의 중심, 부산에 국립공원장 시설 유치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사업개요 (2011~2016년)

- 위치 : 부산시민공원 조성지 내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0,000㎡, 연면적 36,000㎡
- 주요시설 : 대극장(1,800석), 중극장(600석), 소극장(300석), 편의시설 등
- 총사업비 : 1,700억원 (전액 국비)
- ※ 부지확보 : 부산시

■향후계획

- 2013. 5월~6월 : 예비타당성조사 지역주민 호응도 설문조사
- 2013. 하반기 : 예비타당성조사 심사 통과
- 2014년~2016년 : 기본·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시행
- 2016. 12월 사업완료

<자료제공 : 부산시 문화예술과 ☎051-888-5651>

산타라 물 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3. 7.>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주소	연락처
대연동	오예산악회	21(일)	양산 오름산	010-3844-8695
	양천산악회	17(수)	함양 백운대계곡	010-4655-4370
	대오산악회	14(일)	산청 거문계곡	010-5588-4468
	연포산악회	14(일)	지리산 백사골	010-3590-1215
용호동	new새마을산악회	21(일)	함양 덕유봉-북전계곡	010-3044-5329
	다산산악회	7(일)	산청 천계계곡	010-3870-2660
	환경산악회	7(일)	영덕 팔각산-옥계계곡	011-575-3448
	용호산악회	28(일)	함양 거문산	010-2399-4353
	21C산악회	14(일)	강원도 삼척 덕룡계곡	010-9752-0218
	금강산악회	7(일)	조계산 송광사	011-865-9051
	제일산악회	7(일)	지리산 백운대계곡	011-594-4192
	용신산악회	14(일)	통영 미륵산	011-488-3307
	한미산악회	14(일)	청산 배운계곡	010-9324-3424
	여명산악회	7(일)	경북 울진 불영계곡	010-3554-4392
용연동	산사량산악회	23(화)	거창 거문산계곡	010-2552-4236
	부산산악회	7(일)	밀양 구마산	011-576-2729
	청산산악회	7(일)	영덕 팔각산	011-864-0442
	문현산악회	28(일)	청도 문복산(12주년기념)	016-564-8882
김만동	금로별산악회	21(일)	지리산 대성동계곡	010-8287-1192
	녹색산악회	28(일)	충북 괴산 도명산	010-3595-7692
유암동	우암산악회	7(일)	경남 산청 정수사	011-848-2036
	자운산악회	28(일)	거창 사자산계곡	011-9321-6363
	우암산악회	21(일)	전북 진안 운장산	010-7520-6666
	문현산악회	7(일)	영덕 해안둘레길	011-9544-3434
문현동	문현산악회	21(일)	영덕 옥계계곡-비데산	010-6706-1255
	문산산악회	14(일)	경북 봉화	019-558-2828
	원뿌리산악회	21(일)	충북 괴산 칠보산	011-561-5364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0년 전통 아학 남부중고등학교(무료) 수강생 모집

■수업과정

- ▶성인대상 한글기초및중급·고급반
- ▶성인, 청소년 고급·대입 겸정준비반

■위 치 : 문현지구대 옆

■연락처

- 학교 : 051-622-1250
- 담당 : 010-4543-4746

독자의詩

스파게티



최서영

(동천초교·3)

포르프 포르프
포크에 말린 스파게티
북 찍어 입속에 넣는다.

맘팜한 굴속으로
돌진하는 스파게티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조들갑떨며
흔들흔들 내려간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구민 복지를 위하여 쓰여 지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3. 6.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 2013. 6. 16. ~ 2013. 7. 1.
-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 http://etax.busan.go.kr (Cyber지방세청)
 - ▶전국은행 ATM기,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ARS 지방세납부 : 유·무선 무료전화를 이용한 지방세 통합납부 : 080-858-3008
 - 문의 : 세무2과 ☎607-4211~4214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朴 景 鎬 / 편집주간 河 仁 相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전화(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